

소쩍새마을 승가대 부설 추진

복지법인화 작업·원주사암연 향후대책 모색 "MBC 보도 진위조사후 7만 후원자들에게 해명"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쩍새마을이 중앙승가대 부설 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중앙승가대와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가칭)소쩍새마을 인수 및 복지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승가대는 또한 소쩍새마을 인수를 따른 변호인단과 법인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본격적인 인수절차를 밟는 한편 방송국의 보도내용 진실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쩍새마을 법신선님은 "방송국의 과장보도로 불교계와 소쩍새마을이 타격을 입게 되어 안타깝다"며 "소쩍새마을이 겪고 있는 오명을 씻고 소쩍새마을 가족의 앞날을 위해 공신력 있는 중앙승가대에 모든 권

리를 이양한다"고 밝혔다.

방송국에 일력스님의 비리를 제보한후 소쩍새마을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자원봉사자들도 지난 11일 승가대 관계자와 회합을 갖고 "중앙승가대의 소쩍새마을 인수를 환영한다"며 인수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원주사암연회는 지난 8일 모임을 갖고 소쩍새마을 대책위원회(회장 삼지스님, 구통사주지)를 구성했다.

소쩍새마을 대책위는 이날 "KBS·SBS를 비롯 중앙언론에서 수차례 소쩍새마을의 지비 삶을 보도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비리를 통해 불교계와 사회복지계에 실망을 안겨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

확한 진실을 파악해 7만명의 후원자들에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쩍새마을은 1백37명의 정박아, 지체부자유자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MBC-TV가 '소쩍새마을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원

주 동림면에 '진여원'을 건립하고 있어 앞으로 교계최대의 복지 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진여원은 소쩍새마을 가족들이 살아갈 공간으로 2만여평의 대지에 극락전등의 법당과 기도실을 갖추게 된다. 총공사비 1백50억원 가운데 44억원이 투자된 진여원은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8년 완공예정이다.

〈원주=이준엽·김종근 기자〉



중앙승가대·소쩍새마을·자원봉사자들은 지난 11일 회합을 갖고 소쩍새마을을 중앙승가대 부설 복지법인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목탁 소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쩍새마을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갈 곳이 없는 정박아와 지체부자유자, 고아, 미혼모, 무의탁노인 등 1백30여명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생활해 오고 있다.

◇ 불교계 최대의 복지시설이 될 진여원.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옹벽공사가 한창이다.



방송이후 소쩍새마을 분위기

MBC-TV의 '소쩍새 마을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후 소쩍새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원주군 금대분교터에 자리잡은 소쩍새 마을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온을 되찾고 있다.

방송 보도후 진상을 확인하려고 찾아오는 후원회원들과 소쩍새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빙발쳤다.

처음에는 질책과 항의전화가

"한사람의 부도덕적인 행동을 확대 보도해 오갈데 없는 소쩍새 마을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모든 후원자들은 소쩍새 마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후원회원들은 매일 소쩍새 마을 가족들을 찾아 아이들을 일일이 돌보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공양준비를 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쩍새 마을에

후원회원·봉사자 변함없는 자비손길 정박아 등 1백30여명 서로 의지·위로

계속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소쩍새 마을 가족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

아빠스님으로 불리던 일력스님은 언론보도 이후 자취를 감추고 후원자들의 발길은 끊어졌다. 다만 소쩍새 마을 가족들에게 조건없는 자비행을 베풀었던 후원회원·자원봉사자들의 사랑만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사암연회회는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지역 신행단체들도 진상규명과 후원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부모덕적인 행동을 확대 보도해 오갈데 없는 소쩍새 마을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모든 후원자들은 소쩍새 마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시를 비롯 인근 지역의 후원회원들은 매일 소쩍새 마을 가족들을 찾아 아이들을 일일이 돌보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공양준비를 하는 등 후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쩍새 마을에

통해 소쩍새마을의 정상화방안이 모색되고있다.

그러나 정작 소쩍새마을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일력스님의 비리를 고발했던 MBC의 사후대응은 소쩍새마을 관계

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것은 방송이후에도 지방 방송국이 소쩍새마을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쩍새 가족이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온 방송사는 수업중인 여학생을 불러 낸다고 한

다. 최근에는 소쩍새마을의 여학생들이 학교가기가 참피하다며 등교를 꺼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쩍새마을 임마스님인 법신선님이 MBC측에 강력하게하자 방송국의 모국장이 "방송사를 고발하거나 제보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말라"며 "소쩍새마을의 진

실 2만 3천을 계속 방영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MBC의 처사에 대해 원주지역의 불자들은 일부 불순세력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본사에 접수된 '타종교계에서 소쩍새마을을 인수하려한다' '일부 세력들이 충주에 건립

동국역경원 후원회 21일 출범 한글대장경 편찬·보급사업 전개계획

동국역경원 후원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삼성동 봉은사에서 발족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동국역경원 개원 31주년을 맞아 결성되는 후원회는 한글대장경의 편찬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최우선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읽기와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우 무상 원산 일명 정후스님과 목경배 서운길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발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석주스님(철보사 조실)은 "불자들의 숙원인 역경사업을 역경원에만 맡겨두서는 안된다"며 후원사업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인터뷰 7면〉

동국역경원은 1964년 운허·청담스님과 김법린 당시 동국대총장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번역목표량 250권중 174권을 펴냈다. 그러나 역경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낮은 번역료 등의 원인으로 97년 완역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블린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교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개설 세수 40·법납 15년이상 스님 대상

금년 1회에 한해 연령 40세 이상 법납 15년 이상의 스님을 대상으로 범여사(예정)에서 제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끝난지후 3일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개설된다.

한편 조계종 제16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오는 10월 26일(음 9월3일)부터 11월 1일(음 9월9일)까지 범여사에서 봉행된다.

제1회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추모원 4층 회의실에서 수계산림 일정을 이같이 정하고 △유나=종진스님 △교수=종진 성우 무관 철우스님 △인혜=무관 지문스님 △승의=도갑스님 등 교수진을 각각 확정했다.

또한 올해 비구니계 수계자부터 미리 식차마니계를 받아야 하며 식차마니계단임을 증명 8월 하순경 1박2일로 범여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끝난 1주일후 비구계 수계자들은 1주일동안 감음사에서 종진스님을 강사로 <사분 비구계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계단위원회는 비구니계율강의를 비구니스님들이 전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비구니교우회의 공문이 울장의 가르침에 어긋나다고 판단, 그 공문에 서명한 비구니스님들에게 엄중한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단주스님에 건의했다.

경블린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교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경블린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교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경블린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교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경블린 자비의집(운영위원장 김동훈)은 오는 25일부터 3박4일간 벽지학교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 초청 서울견학 행사를 갖는다.

벽지 어린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역 탄광촌 3개교교생 39명과 노원, 도봉, 강북구 소년소녀가장 6명이 초청됐다.

어린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사당, KBS방송국, 안보전시관 등 사회주요시설을 둘러보게되며 마지막 날에는 도선사에 들러 불교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된다.

'스님 사장' 의견 모아 불방대책위, 이사장 잠정 대행체제로

조계종 불교방송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스님)는 지난 13일 추모원 회의실에서 8명의 특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종회결의사항인 직위정제 불이행 책임을 물어 강한필 사장을 사퇴시키기로 했다.

강한필 사장의 후임에는 이사장 종하스님이 직무대행을 맡아 3명의 직원을 징계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차기시장은 '스님으로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날 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모든 문제들을 정상화한 뒤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을 감사하여 3사의 통합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영가천도 선상대제 22~25일 현해탄서

삼풍백화점 참사를 비롯, 비명에 간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더 이상의 대형사고가 없기를

기원하는 '수·륙·공 선상대제'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현해탄 해상에서 열린다.

6백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카멜리아호 선상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덕암스님(태고종 전 종정), 비룡스님(월정사 조실)등 불교, 국제원로승가회 회원과 우이썬나사 인도 대승정, 우제빈다 미안마 대승정, 우지다 일본 동장사주지 등 70여명의 국내외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영가천도 법회를 봉행한다.

태허대중사 열반추모 관음중, 21일 묘각사서

관음중(총무원장 홍파스님)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총본산 묘각사 대웅전에서 태허대중사 열반 1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홍파스님은 "관음중 참종주인 태허대중사의 유언을 받들어 전종도들이 종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올해도, 연료비가 적게들어 경제적인 귀뚜라미보일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
남양주시 전전읍 금곡 3리 792

귀뚜라미 비닐하우스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양 어 장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황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진가가 빛납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흙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름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버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됩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시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귀뚜라미 황형보일러

보일러 국산 1.8t까지 최강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황형구조로 환경의 높이가 낮은 하우스 설치에 적합합니다.

세계적인 연료절약형 터보소용돌이버너

감압통풍식 3PASS구조

보다 큰 송풍장치 없이도 노내의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의 연료절약형 황형보일러입니다.

귀뚜라미보일러

황형 보일러는 비닐하우스 높이가 낮은곳에 설치기 편리한 보일러입니다.

일일보일러

귀뚜라미보일러는 부품수명이 다할때까지 무료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 798-5126